

대구광역시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46회 임시회>

2006. 2. 8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장윤석

대구광역시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06년 2월 2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검토일자 : 2006년 2월 7일

2. 개정이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등 토지관련 신규사무 증가
-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수없는 군정 추진으로 대민봉사행정 구현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토지 담당공무원 보강지침”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모든 주택·토지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되고
 - '04년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 증가
 - 또한, 2005년 8월 개발 완료되어 적용되고 있는 「토지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토지관련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됨
 -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관리전수를 기준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5명의 증원 보강지침을 받았음

○ 주요내용은

- 총정원 653명에서 656명으로 3명 증원(안 제3조)
 - － 집행기관 : 646명 (종전 643명 : 증 3)
 - － 일반직 3명 : 7급 1, 8급 1, 9급 1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안 제3조)
 - － 본청 : 351명 ⇒ 354명 (증 3)
 - － 직급별 : 7급 +1, 8급 +1, 9급 +1
- 소요비용 : 100,099천원

○ 검토결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관련 업무의 증가로 토지담당공무원의 보강이 필요하며
- 행정자치부에서는 5명을 증원하는 지침을 통보하였으나, 군 집행부의 공무원 증원억제 방침에 따라 3명의 증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06년 2월 2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 검토일자 : 2006년 2월 7일

2. 제정이유

- 2005년 1. 27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설해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설시 군민 스스로 자기집, 자기상가 앞 도로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함양토록 계도하여 겨울철 재난예방코자 조례를 제정코자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2005년 1. 27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설해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조례로 제정코자하며
-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므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은

- 제설·제빙작업 책임 순위는 소유자 거주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 비거주시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함 (안 제4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로 함 (안 제5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규정 (안 제6조)
-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함 (안 제7조)
- 건축물관리자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제빙 작업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토록 규정 (안 제8조)

○ 검토결과

- 동 조례안에 별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안전사고 등 책임 공방이 일 경우 이웃간에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우려됨
- 도로의 눈을 치우는 일차적 주체가 자치단체인 만큼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인상을 줄 면도 있음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안 제정 추진현황을 보면은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대구에는 중구청이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6개구청이 표준안으로 의회에 의안을 상정중임
- 서울시에서는 전국자치단체 중 가장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 부결된 이유는 무엇보다 강제성이 떨어지고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임
-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의견 반영, 주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06년 2월 2일
- 제출자 : 달성군수 (도시건축과장)
- 검토일자 : 2006년 2월 7일

2.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 11. 24) 및 동법시행령(2005. 6. 23)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조례에서 군조례에 위임한 사항 전부를 군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 11. 24) 및 동법시행령(2005. 6. 23)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사항 전부를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통합하는 조례개정안임

○ 주요내용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안 제1조 ~ 제36조) : 참조
-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 가능한 공공
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를 추가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 이내”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 (안 제12조 제1항)
 -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 크기를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건물
전면폭의 3분의 2이내”로 완화 (안 제14조 제
2항 제1호)
-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하여 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

- 광고물 등의 “위치·장소”는 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및 장소를 말한다. (안 별표2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3항 가목)
- ‘자기의 건물“ 의 정의를 ”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안 제2조 제2항 제2호)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
 - 한글과 외국문자 병행표시 규정(현행 시조례 제6조 제4호)은 영 제13조 제1항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
 -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되는 옥상 간판의 경우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 신설하여 광고물 표시에 착오가 없도록 명백히 함 (안 제8조 제4항)

○ 검토결과

-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에서 2차에 걸쳐 군·구청 및 광고업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 표준안으로 확정된 조례안임
- 조례안 내용중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전도 검사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등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